

다재다능한 인물 오마치 게이케쓰

예술, 술, 그리고 자연미

오마치 게이케쓰(1869~1925)는 유명한 여행기 및 수필 작가로 시인으로서의 재능도 타고났으며 서예가, 스케치 화가, 작사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일에 열중했지만, 길 없는 길을 가는 것과 많은 술을 마시는 것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단주는 쉽고 절주는 어렵고…’라고 말한 그는 1908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의 취재로 처음으로 쓰타 지역을 찾았습니다. 외진 입지와 웅장한 자연 풍경, 그리고 머물렀던 온천 료칸을 경영하는 젊은 부부의 대접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쓰타 지역 및 도와다 지역에 관해 기술하는 데 뜨거운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그가 쓴 몇 개의 단가를 통해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지역이 일본 전역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오마치

오마치는 종종 쓰타 지역을 찾았으며, 료칸 주인들을 위해 그리고 적은 스케치와 시를 대가로 료칸에 장기 체류했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혹한의 겨울 내내 머무르며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쓰타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로 정하고, 1925년에 이곳을 정식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는 불당 건설 때 나온 목재를 발견하고, 근처에 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마치는 완공을 기다리지 못하고 1925년 6월 10일, 5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오마치의 쓰타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은 이 집 뒤편에 있는 그의 묘비에 새겨진 사세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극락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온천수에 몸을 깨끗이 씻고 잠시 쉬어가자.”

사후의 지원

오마치가 사망한 후에도 그가 남긴 쓰타 지역에 대한 지원 덕분에 이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을 후세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1923년에 쓰타 야생 조류의 숲(국가 지정 조수 보호 구역)을 포함한 도와다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원서를 썼고, 1936년에 도와다 국립공원이 설치되는 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하치만타이 지역이 추가 지정되며, 명칭은 도와다하치만타이 국립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